

미국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한글 방각본 소설 연구

A Study on the Hangeul Banggakbon Novels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이 혜 은 (Hye-Eun Lee)*

유 춘 동 (Choon-Dong Yoo)**

초 록

한글 방각본 소설의 상당수는 해외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글 방각본 소설의 종합적인 연구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하버드옌칭도서관(이하 옌칭도서관으로 약칭)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을 조사했고, 각 본의 서지(書誌)와 계통, 이본으로서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주된 목적은 그동안 이 자료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0종의 한글 방각본 소설은 경판본, 안성판본, 완판본으로 나뉜다. 경판본은 7종이 있는데 『구운몽』, 『이해룡전』, 『장경전』, 『소대성전』(2종), 『춘향전』, 『홍길동전』이다. 안성판본은 1종으로 『양풍전』이 있으며, 완판본은 『화룡도』 2종이 존재한다. 이 본들을 살펴본 결과, 8종은 국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이처럼 옌칭도서관의 한글 방각본 소설이 국내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것들인 이유는 시기적으로 1950년대에 들어서야 자료를 수집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1890년대 조선의 개항과 동시에 영국, 러시아 연구자들이 수집했던 자료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그러나 경판본 『춘향전』, 효교신간(孝橋新刊) 30장본, 완판본 『화룡도』 84장본 서계서포본 2종은 현재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에서만 확인되는 것들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 2종의 한글 방각본 소설을 통하여 경판 방각소(坊刻所) 효교(孝橋)의 특성, 완판본 서계서포 『화룡도』의 간행 양상 및 양책방본과의 관계 등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targets ten titles of Hangeul banggakbon novels in the Harvard Yenching Library to examine the bibliography, system, and characteristics. Among the ten titles, gyeongpanbon Guunmong, Leehaeryongjeon, Chunhyangjeon, Janggyeongjeon, two titles of Sodaeseongjeon, Honggildongjeon, anseongpanbon Yangpungunjeon, and two titles of wanpanbon Hwaryongdo have been found in Korea, too. However, gyeongpanbon Chunhyangjeon, 30 jangbon of Hyogyosingan(孝橋新刊), and wanpanbon Hwaryongdo seogyeseopobon are the ones that can be hardly found in Korea, and the library has possessed it there so far. With the two titles of Hangeul banggakbon novels, it will be needed to reexamine the aspects of publishing Hangeul banggakbon novels afterwards. Hangeul banggakbon novels that Harvard-Yenching Library has now are mostly the ones that can be easily found in Korea, too. It is because the data started to be collected from the 1950's. In comparison with the materials in England, Russia, or Japan in the early 1890's, there are no rare books that cannot be found in Korea. The reason for this may be found from this.

키워드: 하버드 옌칭도서관, 한글 방각본 소설,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 구운몽, 이해룡전, 장경전, 소대성전, 양풍전, 춘향전, 화룡도, 홍길동전, 효교, 서계서포

Harvard Yenching Library, Banggakbon, Novel, Gyeongpanbon, Wanpanbon, Anseongpanbon, Guunmong, Leehaeryongjeon, Janggyeongjeon, Sodaeseongjeon, Yangpungunjeon, Chunhyangjeon, Hwaryongdo, Honggildongjeon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서전문원(helee@mail.nl.go.kr)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sechaek@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 2013년 5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3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13년 6월 3일

1. 서론

이 글은 미국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이하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 10종을 대상으로, 각 본의 서지(書誌)와 계통, 특징 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엔칭도서관에는 총 3,982종 12,695책의 한국 전적(典籍)¹⁾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들은 1950년대 이 대학에서 한국학을 담당했던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가 당시 교환 교수로 왔었던 연세대 민영규 교수에게 한국학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자료의 수집을 요청하고, 이후 한국학 자료를 담당했던 사서 김성하 선생과 함께 수집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허경진 2003, 7).²⁾

한국 전적들 중에서 고소설은 총 66종 107책이다. 이 중에서 필사본 고소설은 서울대 이상택 교수에 의하여 학계에 소개되었고(이상택 1991/1993/1994)³⁾ 주요 자료에 대한 영인(影印)(이상택 1998).⁴⁾ 서지(書誌) 사항을 비롯한 작품의 기초 연구도 이루어졌다(이상택 외 2001; 이상택 2003).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소설의 실상이 밝혀졌고, 개별 작품 연구를 위한 토대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쉽게도 이 논의에서 한글 방각본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⁵⁾ 한글 방각본 고소설은 10종 10책으로⁶⁾ 다른 기관과 비교해볼 때 적은 양이지만 조선시대 한글 방각본 소설의 간행 양상과 전반적인 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글 방각본 소설의 상당수는 해외 기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방각본 소설의 종합적인 연구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이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엔칭도서관에 소장된 한글 방각본 소설의 실본(實本) 조사를 토대로 작품의 서지(書誌), 판본의 계통과 특징 등을 다루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제1저자는 엔칭도서관 자료를 직접 조사했고,⁷⁾ 제2저자는 국내외 한글 방각본 소설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국문학 고소설 연구자들에게 엔칭도서관 한글 방각본 소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차후 이에서 파생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엔칭도서관에는 '조선전적(朝鮮典籍)' 이외에도 한국에서 최근에 간행된 책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 이 내용은 2003년도까지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 관장을 지냈던 윤충남 선생이 밝힌 것이다.
 3) 이상택은 '엔칭도서관본 한국고소설에 관한 일 연구'란 논문을 처음 발표한 뒤에, <창관호연 연구>, <옥란기연의 이본 연구> 등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4) 이상택은 『海外蒐佚本韓國古小說叢書』를 통해서 주요 자료에 대한 영인을 마쳤다.
 5)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활판본 고소설 또한 연구되지 못했다. 한글 방각본 소설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활판본 고소설은 먼저 목록으로 제시하고 차후 과제로 넘긴다.
 6) 한문 방각본 소설 『구운몽』도 1종이 있다. 6권 3책으로, 간기는 "崇禎後度三年 癸亥"이다. 동일 판본이 국내 주요 기관이나 대학 도서관에서 쉽게 확인된다.
 7) 엔칭도서관의 실본(實本) 확인 작업은 2006-2007, 2013년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 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 고소설의 수집 과정과 현황

2.1 장서의 형성 과정

미국 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은 중국, 일본, 한국 자료를 비롯하여 몽골어, 베트남어, 티벳어 등의 자료들과 서양에서 출간된 동아시아 관련 자료들이 중점적으로 수집, 정리,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1928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로 불리다가 1965년 이후에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장서의 특징을 반영하여 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으로 개명되었다(이혜은 2007).

한국 관련 자료는 1950년대 이 대학에서 한국사(韓國史)를 담당했던 와그너(Edward Wagner) 교수와 한국 관련 자료 담당 사서였던 김성하 선생, 그리고 연세대 민영규 교수의 노력으로 많은 양이 수집되었다(윤충남 2001). 자료의 대부분은 족보, 방목, 문집류이다. 그 이유는 와그너 교수가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지배층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상당한 자료가 수집되어 현재 3,982종 12,695책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다(이혜은 2012). 이 중에서 한국 문학, 한국 언어 자료는 TK 5000-5999로 분류되고 총 2,057종 6,135책을 소장하고 있다.

2.2 고소설의 소장현황과 연구동향

이 중에서 고소설은 표기상 한문·한글 고소설, 형태상 필사본·방각본·활판본으로 분류되고, TK 5973.5나 TK 5973.52로 고유 번호가 매겨져 관리된다. 이 자료들은 그동안 서지적 연구와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진자는 이상택(1991), 허경진(2003), 이순구(2003), 윤충남과 김성환(2005), 이혜은(2007) 등이 다루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료 전체를 개괄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택을 제외하고는 고소설을 상세히 다루지 못했다.

후자는 이상택(1993/1994), 이상택 외(2001), 허경진(2003), 정충권(2002), 임성래(2007)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들은 필사본 고소설의 서지와 특성을 밝히거나, 『홍부전』이나 『춘향전』과 같은 주요 작품만 다루었다.⁸⁾ 이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옌칭도서관 소장 필사본 고소설은 일본인 하시모토가 한글을 익히기 위하여 전문 필사자들을 시켜 필사한 것이란 점(허경진 2001), 필사본 고소설 중의 하나인 『김윤전』은 ‘東門外廣信號紙塵宅冊’이라는 필사기가 있어 세책점에서 대여했던 세책본(貫冊本)이라는 사실(이윤석 외 2003) 등이 밝혀졌다. 이처럼 전체 개관을 통하여, 또 개별 작품 연구를 통하여 하버드 옌칭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전적들의 제반 특징들은 소개가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방각본과 활판본 고소설에 대한 서지 및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소설은 총 66종 107책으로, 이 중에서 한

8) 32종의 필사본 고소설을 영웅소설·판소리계 소설, 가정소설·송사소설·기타소설로 분류하여 작품의 성격, 이본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이상택 외 2001).

글 방각본은 10종 10책, 활판본 소설은 16종 18책이다.⁹⁾ 한글 방각본 소설과 활판본 소설은 상업출판물로 이윤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고소설의 상업 출판과 간행 양상 등을 규명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이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의 서지와 특성, 이본의 위상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 한글 방각본 소설의 서지와 특성

3.1 서지사향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소

설은 간행 장소를 기준으로 경판본, 안성판본, 완판본으로 나뉜다.¹⁰⁾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표 1>에서 각 본을 분류하고 서지사향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구운몽 권지단', 판심제는 '구',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반엽 13-14행으로 전체 장수는 32장이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JUL 25 1950'이다.

[2]는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니히룡전 권지단', 판심제는 '니',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반엽 15행으로 전체 장수는 20장이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JUL 17 1959'이다.

[3]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당경전 단', 판심제는 '당',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반엽 15행

<표 1>

번호	구분	권수제	권수	전체 장수	반엽의 행수	간기 및 판권지	청구기호 TK5973.5
1	경판본	구운몽 권지단	1책	32	13-14	없음	4482.6
2		니히룡전 권지단	1책	20	15	없음	1938.1
3		당경전 단	1책	16	15	없음	208
4		소디성전 권단	1책	16	15	없음	6868
5		소디성전 권단	1책	16	15	없음	4945
6		춘향전 권지단	1책	30	14	孝橋新刊	5622.1
7		홍길동전 권지단	1책	21	15	宋洞新刊	1171
8	안성판본	양풍전 단	1책	20	15	안성 동문이신판	1172
9	완판본	화룡도 권지상이라	2권 1책	34	12	丁未孟秋 龜洞新刊 多佳書鋪 大正5년	4322
		화룡도 권지하라		48	12		
10		당양장관교격벽디전이라	2권 1책	40	12	西溪書鋪 明治44년	4323
		화룡도 권지상이라		44	12		

9) 엔칭도서관의 필사본 소설과 활판본 소설의 목록은 [부록]에서 제시한다.
 10)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문 방각본 소설 『구운몽』도 존재한다. 청구기호는 TK 5973.5/4482.6b이다.

으로 전체 장수는 16장이다. 10장부터는 행당 자수(字數)가 많아진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AUG 27 1959'이다.

[4]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쇼디성전 권단', 판심제는 '쇼',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반엽 15행으로 전체 장수는 16장이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AUG 27 1959'이다.

[5]는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쇼디성전 권단', 판심제는 '쇼',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반엽 15행으로 전체 장수는 16장이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 'NOV 1 1957'과 권수제 부분에 '宮崎藏書'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다.

[6]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춘향전 권지단', 판심제는 '춘',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반엽 14행으로 전체 장수는 30장이다. 1장 권수제 밑에 "孝橋新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DEC 28 1956'이다.

[7]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홍길동전 권지단', 판심제는 '홍',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반엽 15행으로 전체 장수는 21장이다. 21장 후엽에 "宋洞新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MAY 29 1951'이다.

[8]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양풍전 단', 판심제는 '양',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반엽 15행으로 전체 장수는 20장이다. 20장 후엽에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MAY 29 1951'이다.

[9]는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화룡도 권지상이라', 판심제는 '화룡도',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상하권으로 구분되며 반엽 12행으로 상권 34장, 하권 48장으로 전체 82장이다. 하권 48장 후엽에 '丁未孟秋龜洞新刊'이라는 간기(刊記)와 '大正 五年 十八日 發行 多佳書鋪'의 판권지가 있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MAY 20 1963'이다.

[10]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당양장판교적벽대전이라 화룡도 권지상이라', 판심제는 '화룡도', 상화문어미와 흑어미로 되어 있다. 상하로 구분되며 반엽 12행으로 상권 40장, 하권 44장으로 전체 84장이다. 간기(刊記)는 없지만 마지막 장에 '明治 四十四年 八月 二十二日 發行 西溪書鋪'라는 판권지가 있다. 표지에 도서관에 입수된 시기를 알려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MAR 23 1964'이다.

이상과 같이 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고소설 10종의 서지사항을 살펴보았다. 서지사항의 확인을 통하여 각 본의 개략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각 본의 중요한 부분을 1장씩 <사진>으로 제시하고, 각 판본의 성격과 위상, 옌칭도서관 소장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사실 등을 다루기로 한다.

3.2 각 판본의 특징과 의의

3.2.1 『구운몽』

한글 방각본 소설 『구운몽』은 현재까지 경관 32장본 2종, 29장본 1종이 확인되었다(이창현 2000, 25). 이 본은 권수제 및 권차 표시가 '구운몽 권지단', 반엽 13-14행,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구'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

으며, 32장 후엽 14행에서 끝난다. 간기는 없다.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운몽』은 기존에 알려진 경판 32장본 중에서 일명 <32장본 B>와 형식이 정확히 일치한다(이창헌 2000, 26).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것 <32장본B>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확정할 수 있다.¹¹⁾

3.2.2 『이해룡전』

한글 방각본 소설 『이해룡전』은 현재까지 경판 20장본 1종만 확인되었다(이창헌 2000, 432).

이 본은 권수제 및 권차 표시는 '니허룡전 권지단', 반엽 15행,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니'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20장 후엽 15행에서 끝맺음된다.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해룡전』 역시 기존에 알려진 판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3.2.3 『장경전』

한글 방각본 소설 『장경전』은 현재까지 경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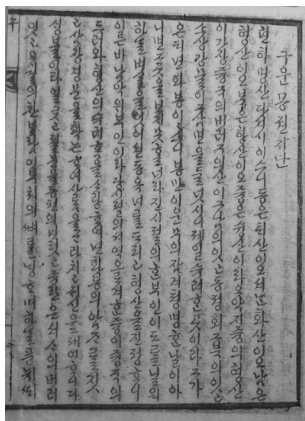
본 3종과 완판본 1종이 확인되었다(이창헌 2000, 267; 류탁일 1981, 208).

이 본은 경판본으로 전체 16장이다. 이 본의 권수제 및 권차 표시는 '당경전 단', 반엽 15행, 상화문어미, 상흑어미, 백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당'으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6장 전엽 15행에서 끝맺음되는 특징을 지닌다(이창헌 2000,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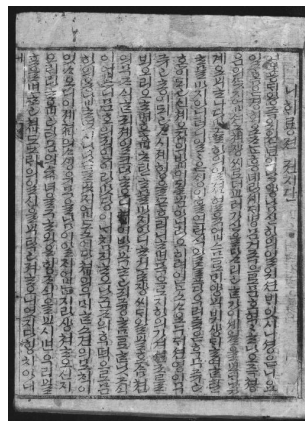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경전』은 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판본의 형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동일한 판본이다.

3.2.4 『소대성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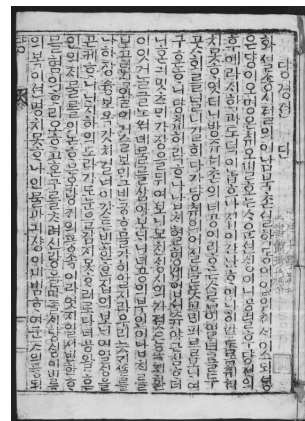
한글 방각본 소설 『소대성전』은 경판본과 완판본이 있다(이창헌 2000, 267; 류탁일 1981, 208). 이 본은 경판본으로 전체 16장이다. 이 본은 권수제 및 권차 표시는 '쇼대성전 권단', 반엽 15행, 상화문어미, 상흑어미로 되어 있고 판



<사진 1> 『구운몽』



<사진 2> 『이해룡전』



<사진 3> 『장경전』

11) '기존에 알려진 본'이란 『고소설판각본전집』,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기타 국내의 도서관에 소장 현황에 의거하여 파악된 것이다.

심제는 '쇼'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6장 전엽 15행에서 끝맺음되는 특징을 지닌다(이창현 2000, 124).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대성전』(1)은 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판본의 형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동일한 판본이다.

한편, 엔칭도서관에는 『소대성전』은 2종이 있는데, 『소대성전』(2)는 권수제 밑에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3.2.5 『소대성전』(2)

『소대성전』(2)는 앞서 살펴본 『소대성전』(1)과 마찬가지로 경판본이며, 전체 16장이다.

이 본 또한 권수제 및 권차 표시는 '쇼대성전 권단', 반엽 15행, 상화문어미, 상후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쇼'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6장 전엽 15행에서 끝맺음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창현 2000, 124). 다만 차이점은 『소대성전』(2)에서는 『소대성전』(1)과 구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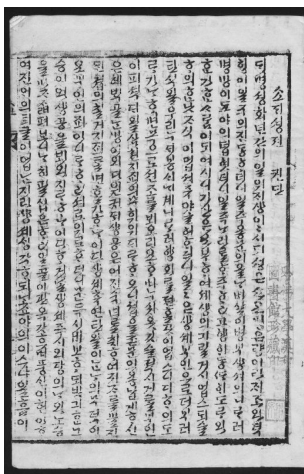
는 특징이 있다.

3.2.6 『춘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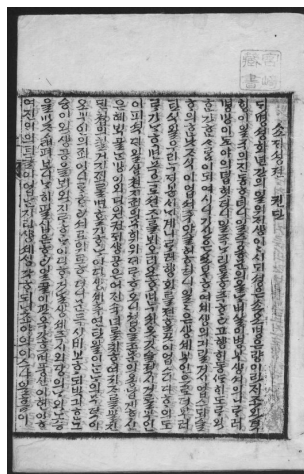
한글 방각본 소설 『춘향전』은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 모두 존재한다. 엔칭도서관 소장 『춘향전』은 경판본으로, 전체 30장이다. 이 본의 권수제와 권차 표시는 '춘향전 권지단', 반엽 14행,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춘'으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장 전엽 권수제 밑에 "孝橋新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본은 전상욱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다. 그는 기존에 간행된 경판 30장본들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선행본의 축소, 번각본이란 지적을 했다(전상욱 2006, 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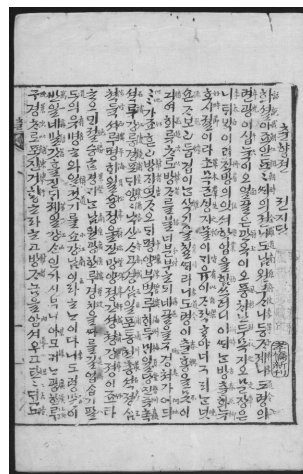
현재 "孝橋新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는 경판본은 대략 3종이다. 이 본들은 주로 번각본(飜刻本)이란 특성이 있다(유춘동 2012, 311). 즉 선행 판본이 있으면 이를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을 적당히 고쳐서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사진 4〉 『소대성전』(1)



〈사진 5〉 『소대성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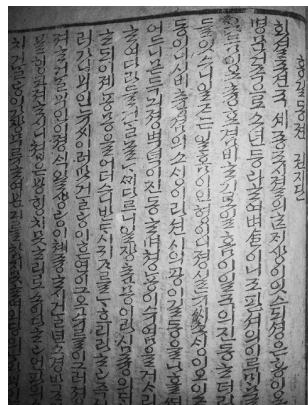
〈사진 6〉 『춘향전』

방각소(坊刻所) '효교'에서는 선행본을 가져다 적절히 변형한 번각본을 주로 생산해냈던 곳으로 보인다. 엔칭도서관 『춘향전』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방각소 '효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엔칭도서관 『춘향전』은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¹²⁾

3.2.7 『홍길동전』

한글 방각본 소설 『홍길동전』은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 모두 존재한다. 이 본은 경판본으로, 전체 21장이다. 이 본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는 '홍길동전 권지단', 반엽 15행,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홍'으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21장 후엽에 "宋洞新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다(이창현 2000, 124).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홍길동전』은 기존에 알려진 21장본 송동신간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동일한 판본이다.



〈사진 7〉 『홍길동전』

3.2.8 『양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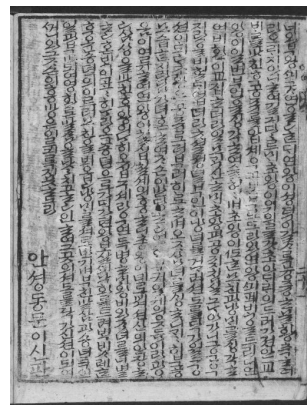
『양풍전』은 경판본, 안성판본만이 있고 완판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본은 안성판본으로 전체 20장이다. 이 본의 권수제 및 권차 표시는 '양풍전단', 반엽 15행,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양'으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20장 후엽 14행에서 끝맺음되는 특징을 지닌다(이창현 2000, 194).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양풍전』은 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판본의 형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동일한 판본이다.

3.2.9 화용도(1)

『화용도』는 완판본만 존재한다. 『화용도』(1)은 완판본으로 전체 82장본이다.¹³⁾ 이 본은 권수제 및 권차 표시는 '화용도 권지상이라 화용도 권지하라', 반엽 12행, 상화문어미로 되어 있



〈사진 8〉 『양풍전』

12)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13) 82장본을 보면 27장 부분이 2장이다. 따라서 실제 장수는 83장본이다. 이 사실은 류탁일이 밝힌 바 있다.

고 판심제는 '화룡'으로 상백구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권 48장 후엽에 '丁未孟秋龜洞新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용도』(1)은 이처럼 기준에 알려진 판본의 형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기준에 알려진 것과 동일한 판본이다(류탁일 1981, 178-179).

다만 차이점은 '大正 五年 十八日 發行 多佳書鋪'의 판권지가 있어서 1900년에도 이 책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음을 알려준다.

3.2.10 화용도(2)

『화용도』(2)는 완판본으로 전체 84장본이다. 이 본은 권수제와 권차 표시가 '당양장판교적벽디전이라 화룡도 권지상이라', 판심제는 '화룡도', 상화문어미와 흑어미로 되어 있다. 상하로 구분되며 반엽 12행으로 상권 40장, 하권 44장으로 전체 84장이다. 간기(刊記)는 없지만 마지막 장에 '明治 四十四年 八月 二十二日 發行 西溪書鋪'라는 판권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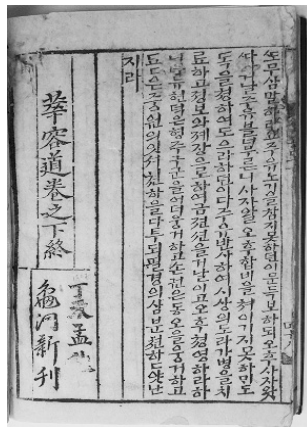
기준에 상권이 '당양장판교적벽디전이라 화

룡도 권지상이라'로 시작되는 『화용도』는 양책방(梁册房)에서 1908년에 간행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류탁일 1981, 178-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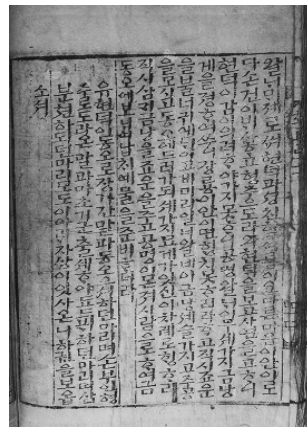
그러나 『화용도』(2)를 보면 서계서포에서 양책방본 이후에 이 본을 만들어 유통시켰음을 새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화용도』(2)는 완판본 『화용도』의 간행 양상에서, 서계서포와 양책방본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과 같이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10종의 한글 방각본 소설을 대상으로 작품의 서지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본들의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것이었다. 예외적으로 경판본 『춘향전』 효교신간(孝橋新刊) 30장본과 완판본 『화용도』 서계서포(西溪書鋪) 84장본이 기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며, 두 작품의 간행 양상 속에서 판본이 지닌 의미와 특성 등은 아래와 같다.



〈사진 9〉 『화용도』(1)



〈사진 10〉 『화용도』(2)

3.3 허버드엔칭도서관 소장 경판본 『춘향전』과 완판본 『화옹도』의 특성

3.3.1 경판본 『춘향전』 효교신간(孝橋新刊) 30장본의 특성

엔칭도서관의 경판본 『춘향전』은 ‘孝橋新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30장본이다. 효교는 현재 종로구 예지동에 있었던 경판 방각본 소설을 제작했던 전문업체이다(김동욱 1976). 현재까지 확인되는 ‘孝橋新刊’이라는 간기(刊記)를 지닌 것은 『구운몽』 <32장본>, 『소대성전』 <30장본> 2종이 있다. 이 본들은 모두 번각본이며 앞부분 권수제 밑에 ‘효교신간’이라는 간기를 새로 새긴 특징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각 본의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두 본을 간행했던 경판본 방각소인 ‘효교(孝橋)’가 경판본 소설을 간행하면서 신간이 아닌 번각본을 주로 간행했던 곳으로 추정했다(유춘동 2012, 311-312).

경판본 『춘향전』 또한 이러한 경판본 방각소 ‘효교’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추가 자료가 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방춘화뉴호시절이라 초목군성지물이 기
음이즈락하야

(〈30장본〉 1장 전엽)

춘향이 아리싸은 소리로 옛즈오디 소녀의 늑흔
이팔이요 일흠은 쥬향이로소니다(〈30장본〉 3
장, 후엽)

금강손 장〃 봉이 평지되어 물미러 비 등〃 쓰거
든(〈30장〉 11장, 후엽)

이 예문은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춘

향전』 <30장본>에서의 오각(誤刻)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이 오각이라는 사실은 3종의 『춘향전』과의 대조를 통해서 확인된다. 엔칭도서관 소장본 이외에 『춘향전』 <30장본>은 파리 동양언어문화학교와 동경 외국어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선본(先本)은 파리 동양언어문화학교이다.

예문의 “기음이즈락은 기유이즈락”, “쥬향은 춘향”, “장〃 봉이는 상〃 봉이”를 잘못 새긴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오류는 각수(刻手)의 실수나 번각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것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기존에 발굴된 효교 방각소본인 『구운몽』과 『소대성전』을 포함하여, 엔칭도서관 『춘향전』까지 살펴서 오각의 양상을 따져보았을 때, 이는 방각소 ‘효교’의 성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구운몽』, 『소대성전』에서는 이미 유통되고 있던 선행본을 가져다가 번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생겼다. 이번에 살펴본 엔칭도서관 『춘향전』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 본다면 ‘방각소 효교’에서 간행하였던 경판본 소설은 신간(新刊)이 아니었으며, 이 방각소는 선행본을 가공하여 번각하는 업체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많은 작품을 검토해야겠지만 엔칭도서관 소장본을 포함한 3종을 통하여 경판 ‘방각소 효교’의 성격과 특성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엔칭도서관 『춘향전』은 경판본 소설의 특성, 간행 양상, 더 나아가 다른 본들과의 관계 및 생성 원리 등을 설명해 줄 수 있어 중요하다. 차후 경판본 제작업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이 본은 중요한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3.3.2 완판본 『화용도』 84장 서계서포본의 특성

옌칭도서관의 완판본 『화용도』는 마지막장에 ‘明治 四十四年 八月 二十二日 發行, 全州郡 府 西四契 卓鍾佺, 西四契 西溪書舖’라는 판권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 판권지로만 본다면 이 본은 1911년 전주의 서계서포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의 성격과 자료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확인된 판본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기존에 알려진 『화용도』는 크게 세 가지 판본이 있다. 1907년 정미구동신간본, 1908년 무신춘완서계신간본, 1908년 무신양책방본이다. 이 본들은 ‘장판교대전’의 서술 유무, ‘동작대부(賦)’ 사설의 유무, ‘청도기 행렬 사설’의 유무, 공명이 남군을 취하는 대목, 결말 부분의 사설 비교를 통하여 나눌 수 있다(류탁일 1981, 179; 김기형 2000; 이기형 2003, 121). 이러한 선행 연구로 본다면 옌칭도서관본은 판권지가 서계서포로 되어 있어, ‘1908년 무신춘완서계신간본’과 판권지만 다른 동일한 판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본은 큰 차이가 있다.

화용도 권지상이라

화용도 권지하라 (<무신춘서계신간본> 상권 1장 전엽, 하권 1장 전엽)

당양장판교적벽대전이라 화용도 권지상이라

화용도 하권리라 (<옌칭도서관본> 상권 1장 전엽, 하권 1장 전엽)

제시한 예문은 서계서포에서 간행된 두 본의 권수제를 대조해 본 것이다. 첫 장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본의 차이는 내용에서도 확인

된다. 예를 들어, ‘장판교 장면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는 점, 청도기 사설이 없다는 점, 주유가 유비와 손부인을 함께 죽이려는 장면,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 본은 서계서포에서 간행되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판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계서포 간행 『화용도』는 1908년에 간행된 무신양책방본과 동일하다. 무신양책방본과 자구(字句)는 물론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앞서 언급했던 ‘장판교 장면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는 점, 청도기 사설이 없다는 점, 주유가 유비와 손부인을 함께 죽이려는 장면,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차이’가 사실은 모두 무신양책방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내용이다.

유현덕이 동으로 장가간 말과 동오서 하던 마리며 손부인 형주로 도라온 말과 마초 기군 출세
 햏야 도” 꺾햏던 마리며 삼분 천햏되던 마리며
 모도 이 아리 자상이 잇사온니 하권을 보옵소서.<<무신양책방본> 하권 44장 후엽)

유현덕이 동으로 장가간 말과 동오서 하던 마리며 손부인 형주로 도라온 말과 마초 기군 출세
 햏야 도” 꺾햏던 마리며 삼분 천햏되던 마리며
 모도 이 아리 자상이 잇사온니 하권을 보옵소서.<<옌칭도서관본> 하권 44장 후엽)

제시한 예문은 양책방본과 옌칭도서관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두 본의 결말 부분을 보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양책방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다른 본과 구분되는 양책방본만의 특징이었다(류탁일 1981, 181).

따라서 엔칭도서관본 『화용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서계서포에서는 1908년 정미구동신간본을 가져다가 판본 및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무신춘완서계신간본’을 간행하였고, 이후에는 1908년 무신양책방본을 가져다가 다시 ‘서계서포’ 판권지를 새로 부착하여 ‘무신양책방본’을 다시 유통시켰음을 알 수 있다.

완판 방각본 소설은 현재 류탁일, 이태영, 조희웅이 진행한 연구 이외에 별다른 연구가 없다(류탁일 1981; 이태영 2007, 29-54; 조희웅 2012). 특히 완판본 서포 간의 판본의 유전(流轉), 개별 작품의 보각 및 간행 양상, 각 서포(書鋪)별 간행되었던 작품 간의 비교 등의 활발했던 완판본의 출판 및 간행 양상 등은 새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¹⁴⁾ 엔칭도서관 소장 『화용도』는 이러한 완판본 소설의 특성 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본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양책방’과 ‘서계서포’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적어도 판본을 양도하여 간행시켰던 과정, 그만큼 『화용도』의 인기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소설 중에서 경판본 『춘향전』 효교신간(孝橋新刊) 30장본과 완판본 『화용도』 서계서포본을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한글 방각본 소설 연구에서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4. 결론과 제언

이 글에서는 하버드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을 대상으로 작품의 서지와 특성을 정리하였다. 먼저 수집 과정과 현황을 제시하여 이 본들이 수집된 경위를 살펴 보았다.

이어서 제시된 각 본의 서지와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 10종 중에서 8종은 국내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이었다. 그러나 경판본 『춘향전』 효교신간(孝橋新刊) 30장본과 완판본 『화용도』 서계서포본 2종은 국내에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본을 검토한 결과 이 본을 통하여 경판본 ‘방각소 효교’의 간행 양상, 서계서포에서의 『화용도』 간행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버드 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 대부분이 이처럼 국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수집 시기가 1950년대 이후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영박물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 있는 한글 방각본 소설은 1890년대 초반에 수집된 것들로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본인 점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 존재하는 고소설의 경우, 개인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료가 소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설은 배제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자들은 현재 해외 소장 전적 및 고소설 자

14)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즉 완판본소설 전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이태영, 정병설, 조희웅의 최근 연구 성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국내외 한글 방각본 소설의 수집 및 분석, 작품별 간행 양상과 특징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미

흡한 점은 차후 총체적인 자료의 검토, 제시와 분석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한국학자 료센터구축사업 현황보고 자료』.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한국 고전적 종합목록 활용과 고서정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기형. 2000. 『적벽가 연구』. 서울: 민속원.
- 김동욱. 1976.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1-5. 서울: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 류탁일. 1981. 『완관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부산: 학문사.
- 박상국. 2003. 해외 전적조사와 프랑스 조사. 『문화재』 36.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 설성경. 1998. 『춘향예술사 자료총서』 1-8. 서울: 국학자료원.
- 오용섭. 2001. 버클리대 소장 한국고서에 대한 서지적 연구.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유춘동. 2012. 일본 고마자와 대학 다쿠소쿠 문고 소장 조선전적. 『한국학논집』, 49.
- 윤충남, 김성환. 2005. 『하바드 연경도서관 한국귀중본 해제』 1-4. 서울: 경인문화사.
- 윤충남. 2001. 『하바드 한국학의 요람: 하바드 옌칭 도서관 한국관 50년』. 서울: 을유문화사.
- 윤충남. 2004. 『하바드 옌칭 한국관 자료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이기형. 2003. 『필사본 화용도 연구』. 서울: 민속원.
- 이상택, 박희병, 임치균, 송성욱. 2001.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서울: 태학사.
- 이상택. 1991. 연경도서관본 한국고소설에 관한 일연구. 『관악어문연구』, 16.
- 이상택. 1993. 창관호연 연구. 『진단학보』, 75.
- 이상택. 1994. 옥란기연의 이본 연구. 『진단학보』, 78.
- 이상택. 1998. 『海外蒐佚本韓國古小說叢書』 1-13. 서울: 태학사.
- 이상택. 2003. 『한국 고전소설의 이론』 1-2. 서울: 새문사.
- 이순구. 2003. 미국 소재 한국 고문헌 정리의 현황과 과제: 하버드대학 옌칭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18.
- 이윤석 외. 2003. 『세책고소설연구』. 서울: 혜안.
- 이창현. 2000. 『경관 방각소설 판본 연구』. 서울: 태학사.
- 이태영. 2007. 새로 소개하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책판. 『국어문학』, 43.
- 이혜은. 2007. 미국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한국

- 고서 디지털화 프로젝트 『서지학보』, 31.
- 이혜은. 2011. 국립중앙도서관 국외소재 고문헌 수집사업의 성과와 과제.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혜은. 2012. 『콜레주 드 프랑스 소장 한국 고문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임성래. 2007. 하버드 대학 엔칭도서관본 〈별춘향전〉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6.
- 전상욱. 2006.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정병설. 2012. 영국도서관 소장 경판한글소설 재론. 『고전문학연구』, 42.
- 정충권. 2002. 연경 도서관본 〈홍보전〉 연구. 『국어국문학』, 130.
- 조희웅. 1999. 『고전소설 이본목록』. 서울: 집문당.
- 조희웅. 2003. 『고전소설 이본목록 연구보정』. 서울: 박이정.
-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 소장 고소설, 66종 107책. 한국서지학회. 1994.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미국COLUMBIA대학 동아도서관소장 한국본목록』. 한국서지학회.
- 한국서지학회. 1995.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미국의회도서관소장 한국본 목록』. 한국서지학회.
- 허경진, 유춘동. 201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 전적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6.
- 허경진. 2001. 고소설 필사자 하시모토 쇼요시의 행적. 『동방학지』, 112.
- 허경진. 2003.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의 한국 고서들』. 서울: 웅진북스.
- LEE, Sonya. 2007.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Library of Congres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42.

[부록] 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고소설(필사본-활판본) 목록

형태	제목	책수 및 발행사항	청구기호
필사본	고열녀전	1책	TK 5973.52/4142
	구운몽	3권 3책	TK 5973.5/6868
	금산사창업연록	1책	TK 5973.52/8248
	김원전	1책	TK 5973.52/8166
	김윤전	6책	TK 5973.52/8220
	南征記	1책	TK 5973.5/4482.51
	뉴씨삼대록	1책(결본)	TK 5973.52/7712
	洞仙記	1책	TK 5973.5/3220
	명일부인전	1책	TK 5973.5/8142c
	閱時榮傳	1책	TK 5973.5/5207
	牧忠孝傳	1책	TK 5973.5/4482.5
	夢見帝釋	1책	TK 5973.5/4702
	朴氏傳	1책	TK 5973.5/4372
	박씨전	1책	TK 5973.52/4720
	白鶴扇傳	1책	TK 5973.5/2322
	별주부전	1책	TK 5973.5/3320
	別春香傳	1책	TK 5973.5/4482.51
	삼국지	19권 19책(권8, 결본)	TK 5754/7257
	謝氏南征記	2권 2책	TK 5973.5/4482.5
	신종황제구점문답	1책	TK 5973.52/1442
	심청전	1책	TK 5973.5/3320
	송부인전	1책	TK 5973.52/1580
	숙향전	4권 4책	TK 5973.5/8142b
	梁周鳳傳	1책	TK 5973.5/3977
	玉丹春傳	1책	TK 5973.5/1375
	육난괴연	7권 7책	TK 5973.5/7269
	琉璃國沈氏傳	1책	TK 5973.5/3430
	월봉기	1책	TK 5973.52/1942
	劉生傳	1책	TK 5973.5/4945
	유소저전	1책	TK 5973.5/8102
	유씨삼대록	1책	TK 5973.52/7712
	윤지경전	1책	TK 5973.5/7852
	李大鳳傳	1책	*TK 5973.5/4447
	李進士傳	1책(합철)	TK 5973.5/1540.2
	정두경전	1책	TK 5973.52/8202
	陳大方傳	1책	TK 5973.5/1540
	조웅전	2권 2책	TK 5973.5/484
	中山望月傳	1책	TK 5973.5/5207
	증을선전	2책	TK 5973.52/8182
	증을선전	1책	TK 5973.5/8182.2

형태	제목	책수 및 발행사항	청구기호
필사본	창난호연	10권 10책	TK 5973.52/6442
	興夫傳	1책	TK 5973.5/5552
	화진전	1책	TK 5973.52/9880
활판본	강릉추월	1책. 德興書林. 大正 13年	TK 5973.5/4290(2)
	견우직녀	1책. 滙東書館. 昭和 6年	TK 5973.5/4290(11)
	금강취유	1책. 東美書市. 大正 4年	TK 5973.5/4290(14)
	대성용문전	1책. 新明書林. 大正 7年	TK 5973.5/4290(6)
	명사십리	1책. 京城書籍業組合. 大正 15年	TK 5973.5/4290(1)
	(증수)백학선	1책. 新舊書林. 大正 4年	TK 5973.5/4290(12)
	수매청심록	2책. 普及書館. 大正 7年	TK 5973.5/4290(7)
	악의전단전	1책. 廣益書館. 大正 7年	TK 5973.5/4290(9)
	영조대왕순야기	1책. 大成書林. 昭和 4年	TK 5973.5/4290(8)
	(현토)옥루몽	1책. 德興書林. 大正 9年	TK 5973.5/1144
	장비마초실기	1책. 光東書局. 大正 8年	TK 5973.5/4290(5)
	초한전	1책. 漢城書館. 大正 7年	TK 5973.5/4290(4)
	홍길동전	1책. 德興書林. 大正 14年	TK 5973.5/4290(3)
	화산기봉	1책. 東亞書館. 大正 5年	TK 5973.5/4290(13)
	흥무왕삼한전	1책. 新明書林. 大正 10年	TK 5973.5/5622.1
	흥부전	1책. 博文書館. 大正 13年	TK 5973.5/42901(10)